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 - 4252

한인회보



- 한인회 이보저모
82년도 한인회 임원진 개편
사무실 이전 및 직원모집공고
불우이웃돕기 미담
한가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안내
- 공지사항
여권발급 안내
약사정기신고
- 생활정보 및 교양
국제진료소이용 안내
인컴렉스에 대하여
노인이 도움을 받자면?
- 한인회 논단
it와 that의 인간!
- 한인회 문단

2

FEB.



EAST-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SUITE 61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IATA-ATC 공인

동서 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 영 업 안 내 —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댁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 영 호



KOREAN AIR LINES



NORTHWEST ORIENT

권 두 언 :

에이레 사람이 바다에서 난파 했습니다. 구사일생의 표류 끝에 어떤 해안에 닿았습니까. 그의 상륙 첫마디가 독특했습니다. 이곳 통치자는 누구냐? 고 물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반대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즈음 영국과 맞서 싸우는 에이레인 기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기질이 에이레사람과 닮은 데가 있다고 쓰는 미국인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컨대, 6.25동란 때 중공군을 물리친 반격전을 지휘했던 당시의 유우엔 총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은 그의 저서 한국전쟁에서 한국인은 에이레 사람처럼 개성주의적 곧, 자기주장이 강하고 반항적이라고 썼습니다.

또 6.25 때 보병 장교로 참전했던 페렌바하는 특수한 전쟁 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인은 돌변하기 쉽고 변덕스러운 동양의 에이레사람 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한국인관이 꼭 옳다고는 말할수 없겠지만 한가지 명백한 것은 외국인의 지배와 차별대우가 거듭된 불행한 역사를 지닌 국민들에게 반항심과 정치불신이 유난히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근해적인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에 잔재의식을 털어 버리고 국민화합에 힘과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다같이 참여하여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반대를 할수 있는 용기와 아량을 함께 갖자는 바람을 나라대로 가져봅시다.

목 차

- 권 두 언 진정한 용기 ?
- 인사말
 회장, 이사장, 기능사 협회장, 학병동 지회
- 한인회 소식
 임원명단, 이사명단, 연례행사표 82년도 사업계획,
 법률고문위촉, 장학금 전달소식, 불우 이웃돕기 미담,
 간담회 소식, 3.1절행사 계획안내, 백주년 기념행사
 계획안내, 한인회 사무실 이전공고 및 직원모집광고
- 공지사항
 고포 여권 갱신 발급안내, 약사신고 안내, 직업 안내
 희비및 기부금 현황, 지출내역 수입및 지출 대비
- 생활 정보 및 교양
 국제 진료소 이용안내, Income Tax 에 대하여,
 어려분 가정의 노인이 도움을 받자면?
- 한인회 논단
 It 와 That 의 인간
- 한인회 문단

존 경 하 는 고 민 어 려 분 !

1982년 새해 아침이 밝아 오는 입술의 새해를 맞이하여 씨애틀-와싱턴주 전 고포
어려분 에게 한인회 전임원과 더불어 고포어려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땅에서 3만여 씨애틀-와싱턴주 지역 고포들께서 각 분야별로
바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또 우리의 전통문화 민족의 긍지를 갖고 끈기
있는 능력을 미국 사회에 적용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줄기찬 노력에 아낌없는 존경심
과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해에 거는 우리의 희망은 지난해에 침체되었던 국제 경기가 활력있는 경기 부양이 되
기를 바라며 국가나 민간관계에 있어서 안정과 화목이 이루어 지도록 기대 합니다.

그동안 침체 되었던 한인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조직강화를 위해서 성실하고도 가늠성
있는 사업과 정확한 고포들의 소재 파악 활동을 함으로써 고포들의 한인사회에 대한 참
여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노력을 하여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한, 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 하는 해로서 한, 미간에 우호증진에 범고포적 운
동으로 승화시켜 성공적인 기념행사를 펼쳐 고포들의 단합된 힘과 전통문화를 미국사회
에 과시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를 육성하는 우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미국사회
의 권익행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는 반드시 고포들의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청되기도 합
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인회 전임원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건실한 한인회 활동
의 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둘러싼 내외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
의 값어치를 얻어 우리들에게 균형적인 발전과 한인사회가 더욱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존경 하는 고민 여러분 !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곳 생활의 여건을 인내와 슬기로서 난관을 돌파하여 우리 모두 굳게 뭉쳐 고포들 사이에 든든한 유대를 유지하고 우리 한인사회를 위하여 아울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전진 합시다.

끝으로 고포여러분의 험난한 인생향토에 항상 손풍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1982년 1월 1일

씨애플 - 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씨애플 - 와싱턴주 고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임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포여러분의 소원이 영봉하시기를 바랍니다. 덕망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사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어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고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친애하시는 고포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담을 감사하오며 존경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인내를 바랍니다. 봉사 단체인 본 한인회는 회원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며 사회적으로 상호협조하고 한 미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봉사 사업을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한 미 수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 하여 한국정부는 1982년을 한 미 우호의 해로 결정 하였으며 전국적인 고포행사가 또한 계획중입니다. 한 미 양국은 1882년 5월 22일에 인천에서 한 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이래로 협맹으로서 우호를 증진 하여 왔습니다.

첫 한국 이민선인 개척 호가 121명의 고포를 싣고 제물포를 떠나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에 1903년 1월 13일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민생활은 노예들이 견는 가시밭길이었으나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민은 한민족의 전개였으며 최근의 해외 이민법 제 1조는 그곳을 적절하게 표방하였으니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 함으로서 인구 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요될수는 없지만 조상이 대대로 이어온 조국을

방관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 첫째 의무는 살고있는 곳에서 그리고 처해있는 장소나 직장에서 고포과자가 정직한 노력으로 성공하여야 하며 조국의 이미지를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포 여러분 ! "성서에 확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 5 : 9) 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평의 꽃은 희생의 꽃밭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인회는 지난간 15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학생회관 이층에서 탄생한 본회는 전통과 많은 풍파도 겪었습니다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가 싶습니다.

고민 여러분 ! 적극적인 참여정신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합시다. 삼기 좋다는 이고장에서 꾸김삼 없이 보람되고도 만족한 이민생활을 기리 누리십시다.

1982년 1월 1일

이사장 김 현 김

고민 여러분 !

친애하는 한인 고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가정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라도 고민여러분께 인사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때즈음이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고 또 결심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를 실천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치 않습니다. 오로지 큰 결단력과 주저하지 않음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시작은 반이다 "

금년 기능사 협회에서 계획은 많이 세우기 못했습니다만 계획한 몇몇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꼭 실천에 착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1982년도에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고포 개개인에 이르기 까지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좋은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982년 1월 1일

워싱턴주 기능사 협회 회장 박 은 남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해병동지회는 고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한번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
아래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병동지회가 밥죽한지 만 사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선임회장단들께서 고민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지만 팔십이년도에는 좀더 명량한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것
과 고민사회에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합력고 저희들은 힘껏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해병대하면 개병대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무적해병대라는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념아래 조국대한민국을 지킬수있는 길이라면 언제어디서나 전
투에 임할 정신무장이 되어있습니다.

고민여러분!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과 같이 고민들전체가 협동 협심하면 우 리한인 단체는
어느곳이든 지치지 않고 답릴수 있게 성장 했을 것입니다.

해병외 긍지보다 우 리한인의 긍지를 되살려 한마음 한뜻으로 굳 계몽처 들판의 황금빛 찬
란한 국식을 지어 팔십이년도 에는 거두어 봅시다.

천 구 백 팔 십 이 년 이 월

워싱턴주 해병동지회장 구 수 합



• 한 인 회 소 식 •



- 한인회 임원 명단
- 이사 명단
- 연례 행사표
- 82년도 사업 계획
- 이창희 장학금 전달

- 불우 이웃 돕기 현장
- 법률고문 유촉
- 교포 간담회 소식
- 체육위원회 창립 추진
- 한 미 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

• 한인회 임원 명단

회 장	엄 명 보
부 회 장	강 성 국, 김 금 손
총 무	김 정 택
재 무	박 우 석
봉 사	박 상 근
고 육	
편 집	박 용 목
체 육	유 월 상
조 직	연 창 모

• 이사 명단

이 사 장	김 형 김
부 이 사 장	김 문 규
이 사	정 용 환
이 사	강 동 언
이 사	서 광 선

— 번 영 —
씨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 연례 행사표

삼일절 기념행사	... 3월 1일
광복절 기념행사	... 8월 15일
개천절 기념행사	... 10월 3일
한인회 총회 및 행사	... 11월 중
아리랑의 밤	... 12월

• 82년 사업 계획

- 경노회 잔치 (시기는 추후 공고)
- 한국의 밤 (한미간의 유대강화 및
씨애틀-워싱턴주 거주 아시안 고민회
장들과의 친선 도모)
- 한인회보 발간 (매월 발간 예정)
- 종합체육 대회 개최 (시벌 대항전)
- 한국학교 설립위원회 구성 (예정)
- 체육 위원회 설립 (각종 체육 행사 주관)
- 아리랑의 밤 (12월 중)
- 여름학교 모국방문 예정
-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행사 (5월 중)

● 이창희 장학금 전달

이창희 선생 추모 장학회
에서는 81년도 - 82년도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하였습니다.

안경희 \$500.00
Shoreline Community College
Asian Studies

최성락 \$250.00
U of W
Mechanical Engineering

권영재 \$250.00
Portland State University
Computer Science

서병석 \$250.00
Shoreline Community College
Business Administration

장인혁 \$500.00
U of W
Chemical Engineering

정성숙 \$500.00
U of W
Music (Ethnomusicology)

● 불우 이웃돕기 현장

(한인 연합 장로교회 의 자선)

1981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해 씨애플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 : 박영
희) 에서 우리 고민중 생활이 어려운 분
께 성탄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한인회에
의뢰해 온바 엄명보 한인회장 과 동교
회 오준걸 장로 두분이 고민 세분께 과

\$100 씩 전달하여 이국에서의 따뜻한 동
포애를 느끼게 하였다.



● 본 한인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나름대로 조국과 자신을 위
하여 힘든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고민들 가
운데에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
시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본지에 게재 하기로 하
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우한 우
리 외 이웃이 계시면, 본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서로도움을 주고 받
을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이국생
활이지만 3만여 고민들이 조금씩의 정성
을 다한다면 화목과 단결로서 우리한인 사
회의 앞길은 밝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북국에서의 소수민족이라는 씩씩한 어운을
덜고 긍지와 뚝뚝한 자부심을 갖고 힘차
게 내일을 위해 일어설수 있는 용기와 구
력을 서로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핑크

시커멓고 더러운 털이 복실복실 덮인
커다란 개를 끌고 한 조그만 애가 썰
썰매고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애,
너, 그 개랑 어디 가니?" 했다.



그 남자애의 당당한 대답: "아직 모
르겠어요. 이 개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결정하면 그리로 끌고 갈거예
요." -S.R.

● 씨애플 - 와싱턴주 한인회

법률 고문 위촉

금번 씨애플-와싱턴주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및 교포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같이 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 하였습니다.

Mr. GORDEN S. CLINTON
ADD. : 500 3rd Lenora Bldg
Seattle, Wa 98121
TEL. : 624 - 6831

Mr. LONALD G. BROWN
ADD. : 2110 Exchange Bld.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TEL. : 682 - 0565 (O)
821 - 4465 (R)

Mr. 에디운 (윤영일)
TEL. : 582 - 7996
565 - 6005
ADD. : Sun Plaza Bld. Suite #A4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3.1 절 기념 행사 안내

본 한인회는 3.1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고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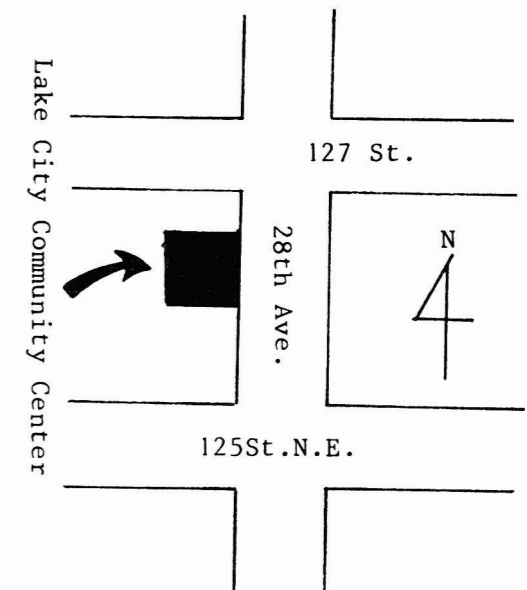
행사후 간단한 다과회 및 영화상영이
(제목 : 로맨스그 레이) 있습니다.

날 짜 : 2월 27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1:00 시
장 소 : Lake City Community
Center

● 교포 간담회 소식

●..... 다사 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여 고민들의 권익신장과 화합
과 보다 나은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
신한 면모를 띠고 힘찬걸음으로 새로이 출범
한 씨애플-와싱턴주 한인회장단의 엄명보
회장 및 임원들이 교포여러분들을 모시고
82년도 한인회의 운영및 재정립에 대한 제
한 및 3.1절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 한미 수
교 1백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등 폭넓
은 교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국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건실적이고 유익
한 고견을 듣기위하여 간담회를 1월 30일
시내부식호텔회의 (한일과 식당 아래
층) 에서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약도



● 체육 위원회 창립추진

시애틀-와싱톤 주 한인회 산하의 체육위원회를 새로히 발족할 예정이며 고민중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체육위원회는 앞으로 고민들의 유대강화및 각종 스포츠행사를 주관하여 워싱턴주 고민들의 체력향상및 단결력을 고취시킴 목적으로 수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시벌대항전및 미주 체육대회, 본국 체육대회 등에 참가할 예정으로 설립추진 하고 있음.

광트

포커 놀이를 하고 있는 어느 남녀의 대화:
 "헨리, 저는 퀸(여왕)이 너 장이에요."
 "난 킹(왕)이 너 장이라고!"



"호호, 그럼 비겼군요."
 "뭐라고! 소위 여성해방운동가란 부류하고 다시 포커 노나 보시오!"
 -J.H.

###

삼일절노래

지휘 윤한복

● 한.미 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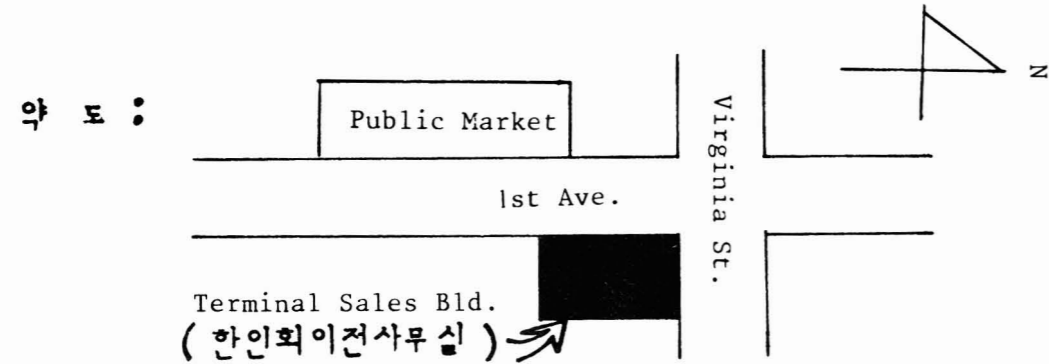
1. 정부 계획, 집행 행사
 - 주 시애틀 총영사관
 - 1) 축하 리셉션 (총영사관) (5.21)
 - 시애틀 . 포블랜드 (미정)
 - 2) 국악연주단 공연 (5.16-6.30)
 - 시애틀
 - 포블랜드 (미정)
 - 3) 특집기사 개재 (대상일간지 계약 : 1.30 개재 : 3월-5일)
 - 시애틀 (S.T., P.I., T.N.T)
 - 포블랜드 (The Oregonian)
 - 4) 한.미 수교 백주년사 기록확보
 - 발간 (4월중)
 - 영문판 20,000부
 - 5) 해군사관생도 미국순환 훈련 (10-12월)
 - 시애틀
 - 포블랜드 (미정)
 - 6) 주요인사 초청및 방미 (주요 언론인, 유공인사 등)
 - 7) 자매결연 관계 행사
 - 학교 Sports Team 교류
 - 친선 대표단 교류

2. 고민행사 (81.5.21-28) - 시애틀
 - 와싱톤 한인회 주관
 - 1) 가두 페레이드
 - 시애틀
 - 락로마
 - 포블랜드
 - 2) 고민 예술제
 - 시애틀
 - 포블랜드
 - 3) 백사장
 - 4) 정부행사 협조
 - 가) 국악 연주단 공연
 - 나) 해군 사관생도 훈련함 영접
 - 다) 자매결연및 관계행사
 - 행사내용
 - 1) 각종 Sports Team 및 합창단 등 교류
 - 2) 친선 대표단 교류
 - 자매결연 현황
 - 1) 시애틀항과 부산항
 - 2) 락로마시 와 군산시
 - 3) Eastern Wash. Univ. 와 동국대
 - 4) 포블랜드 항과 울산항

씨애틀-와싱턴 주 한인회 사무실 이전 공고

고민 여러분들의 편의와 보다 원활한 유대를 위해 사무실을 아택 (Down Town)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인회 사무실이 전 고민의 요람이 될수 있도록 고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이용을 바랍니다.



주소 : 1932 1st. and Virginia St. Seattle Wa 98101

전화 : (206) 682 - 4252

직원 모집

82년도 씨애틀 - 와싱턴 주 한인회 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 및 고민 봉사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택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아 택

자격 : 씨애틀 - 와싱턴 지역 거주 의 미혼 여성으로 기본적 영어 해독 및 한글 독자, 영문 독자에 능한분.

모집인원 : 0 명

구비서류 : 자필 이력서 1통 사진 1매

접수기간 : 2월 10일 한 (우편 접수에 한함)

급료 : 능력에 따라 우대함

보내곳 :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공 지 사 항



- 거주 (고포) 여권 갱신 발급
- 교수 요원 공개 채용 공고
- 구직 안내
- 한인회 기금 현황

● 거주 (고포) 여권 갱신 발급 안내

가. 구비서류

1. 현 소지 여권 : 신 여권 발급 후 무효화되어 당관에 보관됨.
(단, 현 소지 여권을 보관코자 하시는 분은 여권 전면 사본을 별도로 당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진 5매 : 신청서에 1매, 신원확인서에 3매, 신여권에 1매.
크기 : 2x2 인치 (5cmX5cm)
3. 영주권 앞뒷면 사본 각 1매
• 복사후 백지에 앞뒷면 부착바람.
4.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 기재 요령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하신 후, 사진 1매 부착 하여 사진에 식명 또는 날인.
5. 신원확인서 3매 : 사진과 1매씩 부착하고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수수료 : 기본 \$20,00 (현금 Check 또는 Money Order)

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에 대하여는 매 1년 초과시 과태료 \$3.00이 추가됨.

(81년 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신 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없음)

나. 소요 기간 : 접수후 약 2주일

다. 기타 사항

1.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주소, 성명등이 기재되고 반송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동봉 하시기 바랍니다. (반송 여권 무개 및 우편물종류에 따라 정확한 반송 우표를 부착 하셔야함)
2. 가족이 함께 신청하셔도 모든 구비서류는 1인당 별도로 구비, 신청 하셔야함.
3. 준비된 서류는 자세히 검토 하시어 반송되거나 갱신 발급업무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 신청 장소 : 씨애틀 와싱턴주 영사관

약사 신고 안내

82년도 약사 면허 소지자 정기신고

약사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 82년도 약사 정기신고 " 가

보건 사회부 공고 52호 같이 실시하오니
 씨애플-워싱턴주에 거주하시는 교민중
 에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고하시기 바랍
 니다.

문의처 : 씨애플- 워싱턴주 한국 총
 영사관

● 교수 요원 공개채용 공고

본국의 부산대학교 에서는 미주 지역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국의 교육봉사
 에 헌신할 참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인문대를 비롯해 12개 단과 대학별로 교수
 요원을 초빙할 계획이므로 이때 해당되시
 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본 한인회 편집부 (전화
 682-4252) 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직 안내 (Job Information)

워싱턴 주 정부 관계기관의 각종 Job
 Information 및 구인광고가 주정부로부터
 매달 우송 되어 오고 있어 관심이 있
 으신분이나 더 많은 Information 을 원하
 는 분은 한인회로 문의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인회 사무실 : 682-4252

● 본 한인회 편집부에서는 교민여러
 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 산

하기관의 주 연방 공무원및시공무원 채용
 시험안내및 각종직업정보를 다음호 부록
 본 회보지에 게재 하므로서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분의 많은 문의를 바랍니다.

~~~~~

● 한인회 기금 현황

1월중 회비및 기부금 납부자

- ( 회비 ) 1. 강 동 언 \$ 20.00
- 2. 김 중 구 \$ 50.00
- 3. 김 현 김 \$ 100.00
- 4. 이 규 조 \$ 100.00
- 5. 황 수 철 \$ 80.00
- 6. 엄 명 보 \$ 200.00
- 7. 김 정 백 \$ 15.00
- 8. 김 문 규 \$ 20.00
- 9. 이 동 립 \$ 100.00
- 10. 정 온 제 \$ 15.00

( 기부금 )

- 1. 영 사 관 \$ 1,000

( 건축 기금 )

- 2. 김 정 백 \$ 20.00

● 1월중 지출 현황 ( 무순 ) ( 1월 16일-1월 30일)

이전 사무실 보증금및 2월분 세  
 © 175 x 2 \$ 350

|                  |             |
|------------------|-------------|
| 구 사무실 1월분 세      | \$ 185.00   |
| 우표대 0.20 150 매   | \$ 30.00    |
| 복사대 0.08 100매및   | \$ 8.53     |
| 12월 사무실 전화요금     | \$ 31.61    |
| 문방구 대 (사무실용)     | \$ 5.00     |
| 간담회 회의실 사용료      | \$ 50.00    |
| 간담회 간식대          | \$ 78.00    |
| U.W. 송년파티보조      | \$ 100.00   |
| 수입및 지출 현황 ( 1월 ) |             |
| 수 입 계            | \$ 1,720.00 |
| 지 출 계            | \$ 838.14   |

~~~~~

서 광선보험

■ 보험선택은 자기에게 알맞게!
 ■ 각종 보험의 상담은 전문가에게!

* 생명보험 * 저축보험 * 교육보험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사업보험



NEW YORK LIFE

OFF (206) 622-8966 (SEA)
 (206) 854-3500 (KENT)
 (206) 924-0350 (TRC)
 RES (206) 941-5161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5 W. HARRISON ST., P. O. BOX 1088
 KENT, WA 98031



龍門酒家

The China Gate RESTAURANT

- 대소 연회석 완비
- 각종 요리
- 한국인 전자오르겐 연주
- 한국인 가수 열창
- 아라비안 무용수의 Belly Dance (일, 월요일 밤 10시, 12시)

위치 : China Town 내 516 7th Ave. South, Seattle.

전화 : 624-1730

● 생활정보 및 교양 ●



- 국제 진료소 이용 안내
- 인컴택스에 대하여
- 여러분 가정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자면
- 미국 이민소식

● 국제 진료소 (무료진료) 이용 안내

● 진료 예약 절차

(병이 났을 때)

622-9650 로 전화 하여 진료 날짜, 시간을 예약한다.

진료 예약시 : 인적 사항 및 병 증세를 설명 진료 일정을 예약 받을것.

예약한 진료 날짜, 시간을 엄수 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며 만약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일 2일전에 전화로 알려줄것.

정규진료 시간이 지난후 긴급치료를 요구 하는 경우 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 324-7650 로 전화하여 당

신의 이름 전화번호를 말하고 ID clinic

(국제 진료소) 환자라고 말하면 교

환수가 국제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당신에게 다시 전화하여 도와 줄것이다.

(응급을 요하는 경우) - 생명 위급

911 전화하여 교환수에게 의료 긴급이라고 말하면 " Medic (매딕) " 에 교환

해주며는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고 당신의 사정을 설명하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며 도움을 받을수 있다.

Medic (매딕) 이란 생명이 위급한 응급시 도와주는 사람.

(정규 진료 시간)

월-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 오전 9시 - 오후 12시

(진료소 전화 번호)

622 - 9650
324 - 9650 (응급 전화번호)

● 국제 진료소 환자의 권리와 의무

(당신의 권리)

정중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
치료비가 없어도 의료진찰을 받을수 있다.
진찰실에서 프라이브시 와 누구든지 당신

의 허락없이 진찰에 들어올수 없다.
의료 기록장의 비밀을 보장 받을수 있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승인없이 가족 계획과 성병치료를 받을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의사나 간호원을 선택할수 있으며 바꿀수도 있다.
당신의 치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또는 의사나 간호원의 불 만족할경우 그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수 있다.

(당신의 의무)

당신의 의사 간호원에게 정중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한다.
진료소에 전화하여 예약시간과 날짜를 정한다.

예약시간을 엄수하고 만약 예약시간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전화로 알려준다.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치료허가를 해주어야한다.

당신의 치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의문나는 사항은 서슴없이 질문한다.

당신에 대한 치료방침에 동의 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할수 없을때는 그 사실을 의사, 간호원에게 알린다.

관련되는 모든 의료상의 정보나 당신이 다른곳에서 받고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의사, 간호원에게 알린다.

매 진료시 마다 메디칼뷰폰 의료보험카

드를 제시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입의 변경사항을 준다.

● 생활 정보 및 교양 난의 배경에 관하여

... 언어의 장벽과 풍습의 차이로 이민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한인회 편집부에서는 각종 생활정보 및 교양에 관한 사항을 성의껏 제공 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어려움을 겪으신 선배 교민 여러분들의 생활 아이디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착하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 부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편집부 ●

하루는 지옥과 천당을 갈라놓고 있는 울타리를 누가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성 베드로와 악마가 열을 내 토론하고 있었다.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성 베드로가 "그 울타리를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당장에 고소하리다" 했다.

그러자 악마는 하나도 떨 것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종소.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오.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나 있소?" -E.D.

● 인컴 택스에 대해서 (INCOME TAX)

제일 먼저 인컴택스 보고를 누구 누구 가 꼭 법적으로 보고해야 되는가를 알아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혼을 하셨거나 혼자사는 독신들은 1981년도 총수입이 \$3,300 이상 일때 단 독신자가 1981년 12월 31일부로 65세를 초과 하신분은 \$4,300 이상일때 꼭 연방정부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결혼하신 두부부의 경우는 총수입이 \$5,400 (만 65세 이하) 단 65세 이상인 경우는 \$6,400 이상이면 꼭 세금 보고를 세째로 위에 첫째, 둘째에 해당치 않는 독신자 즉 미망인이나 상책 하신 분들중에 아들, 딸 또는 사촌 지간에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4,400 이상일때 꼭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총 수입이 위에 없거한 액수보다 적은 분들이라 도이자나 개인 사업으로 통해서 수입이 \$400,00 이상일때는 법적으로 종합소득세 보고를 꼭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없거한중 액수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5년마다 합수있는 평균 총 수입 보고에 혜택을 받으실려면 Income Tax file 을 하시는 것이 본인 자신들 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로 작년도 Income Tax Rule (인컴택스 법) 과 달력진 몇 조항을 간단히 열

거 하자면 첫째로 작년도 (1980년도)에는 총 수입에 식구 수가 몇인가를 대조해서 과세표를 보면 세금이 얼마인가를 대강 측정 합수 있었으나 1981년도 양식 (1040, 1040)에는 먼저 총 수입에서 각 식구당 \$1,000 씩 계산하시어 계산된금액을 삭감 하고 난 금액을 보시고 과세표와 대조 하시면 본인들 이 세금을 돌려 받을것인지 또는 지불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은행이자중 1981년 9월 30일 이후로 정기에금 1년이상 한것에 대해 받은 이자는 한식구에 \$1,000 씩 즉 부부 \$2,000은 총 수입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세째로 1981년 10월 1일부 부터 소득세율이 낮어져서 세금부담이 1980년보다 가벼워 졌습니다. 또한 그외 몇가지 Capital gain 등에 대한 과세종목등이 변경 되었으나 이것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90% 정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각각 담당 계리사를 갖고 계시기에 여기서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수입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가를 열거 하겠습니다.

1. 각 직장에서 받은 봉급
2. 은행에서 받은 이자
3. 각 개인에게 꾸어 주었다가 받은 이자
4. 서비스업으로 봉사 하는 분으로 Tip 을 받으신것 .

5. 실업 수당 받은것 (총 수입에 따라 다름)
 6.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받은 월세
 7. 각종 복권이나 마권놀이 등에서 받은 상금이나 이득금
 8. 주식을 갖고 계시어서 받은 이득금
 9.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팔때 생긴 이득금이나 손해볼 금액등이 총 수입과 관계 됩니다.
- 둘째로는 그럼 어떤 종목등이 세금을 보고 하실때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인가를 열거 해 보겠습니다.
1. 각종 이자 지불
 2. Sales Tax
 3. 자동차 Excise Tax
 4. 건강 보험비
 5. 병원, 의사, 치과외사, 약값
 6. 병원에 가기 위한 총 자동차 Mile수
 7. 안경 맞춘 비용
 8. 이고정비
 9. 직업상의 관계로 위험 있어 사시는 옷, 신발, 안경, 장갑등 안전을 위한 조합비
 10. 직업상 필요한 책및 부수품
 11. 노동 조합비
 12. 과 자선단체 교회 등 (재무성의 인가 받은 단체) 에 기부한 일반, 주정 감사헌금등 십일조 또 한인회에 납부 하신 회비, 한인회관 건립 기금등을

에로 들수 있습니다.

13. 직업을 갖기위해 지출된 직업 소개비
14. 부아소 비용
15. 집에 살고 있는 분으로서 이중창 인설레이슨 등 온방을 위해 든 비용
16. 북주에서 북주로 이사한 비용 (몇 가지 자격 조항에 만족되어야함)
17. 도둑의 피해를 받은 비용
18. 화재 피해
19. 가옥 세금
20. 세금 보고서에 지출된 계리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분들을 위해서 이것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여기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여러분 들께 알리고 싶은것은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직접수입에 관계된것만 해당되고 이혼이나 양자를 데려 오려고 든 비용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5년간에 평균수입으로 세금보고시에 지난 4년간에 누락된 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누락된 지출은 그해 해당 년도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정정신고는 3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문제는 지면이나 전화상으로 연락주시면 대답드리기로 하고 위에 열거한 세부사항에 해당치 않은 사람들 중에

년 총 수입이 \$10000 이하인 부부중에 아
들이나 딸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총 수입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도 있으니 세금보
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전화 번호는 623-4181 주소는 2809
4th Ave Seattle 로 이전 했습니다.

이 규 영 계리사

- 여러분 가정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자면 ?



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



DO YOUR ELDERLY NEED HELP?

The Pacific/Asian Elderly Service Delivery Project is a model project subcontracted to the 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 by the King County Division on Aging.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or strengthen volunteer-based organizations in ten Pacific/Asian communities. These communities include the Cambodian, Chinese, Indo-China Chinese, H'mong, Japanese, Korean, Laotian, Filipino, Samoan and Vietnamese. The intent is to build a self-sustaining voluntary organization in each community that will deliver services directly and will also facilitate the delivery of services by the majority culture aging network.

The project is staffed by skilled community organizers who assist Pacific/Asian volunteer groups with needs assessment, community organizing, organizational development, program planning, resource develop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more information call:

PACIFIC/ASIAN ELDERLY SERVICE DEVELOPMENT PROJECT
409 Maynard Ave. S., Seattle
Washington/(206) 447-3606

- 우리는 다음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연로자를 위한 친목및 오락
프로그램을 작성
- 식료품 구매조합의 창설
- 영어 강습소의 편성
- 민족 예술 행사의 전개
- 각종 의료 서비스의 안내
- 교통편의 제공

아래의 문의 처에서 이를 제공하는 기관
및 방법을 알려 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문의처) 아시안 카운셀링 447-3606

● 미국 이민 소식 ●

UNITED STATES IMMIGRATION NEWS

By Dan P. Danilov of Seattle, Washington and Allen E. Kaye of New York, N.Y., U.S.A.

UNITED STATES IMMIGRATION NEWS is now available for annual subscription at \$50.00 per year for 52 weekly newsletters. Send payment for subscription to either Co-Author.

January 1, 1982

January Visa Availability

Immigrant visa availability for January, 1982, is as follows:

Foreign State	1st	2nd	3rd	4th	5th	6th	Nonpref.
All Foreign States and Dependent Areas Except Those Listed Below*	C	C	C	C	2-8-80	5-22-80	U
India	C	C	C	C	11-15-79	U	U
China	C	9-1-81	9-22-80	5-8-79	7-22-77	4-15-80	U
Korea	C	C	C	C	10-8-78	U	U
Mexico	C	12-15-72	C	6-15-78	11-8-77	5-22-80	U
Philippines	C	2-8-79	3-22-70	6-22-75	5-1-70	6-22-78	U
Jamaica	C	5-22-81	C	C	2-1-80	2-1-80	U

* Dependent areas with backlogs have not been listed.

"C" means current, i.e., that visa numbers were available for all qualified applicants. "U" means unavailable, i.e., that no visa numbers were available. The cut-off date for an over-subscribed category is the priority date of the first applicant who could not be reached within the numerical limitations. Only applicants who have a priority date earlier than the cut-off date may be allotted a visa number. The non-preference category continues to be unavailable and is expected to remain so indefinitely.

The second preference category remained current for most foreign states, Korea and India. For China, it advanced from August 1, 1981 to September 1, 1981; for Mexico it moved to December 15, 1972, for the Philippines it moved ahead one week to February 8, 1979, and for Jamaica from April 15, 1981 to May 22, 1981.

Third preference remained current for most foreign states, India, Jamaica, Korea and Mexico, for China it moved three weeks to September 22, 1980, and for the Philippines it advanced from February 15, 1970 to March 22, 1970. Fourth preference remained current for most foreign states, India, Jamaica and Korea; it moved from April 22, 1979 to May 8, 1979 for China, it moved two weeks to June 15, 1978 for Mexico and from March 8, 1975 to June 22, 1975 for the Philippines.

The fifth preference category moved ahead two weeks from January 22, 1980 to February 8, 1980 for all foreign states, for India it moved from October 22, 1979 to November 15, 1979, for China from July 1, 1977 to July 22, 1977, for Korea it moved one week to October 8, 1978, for Mexico it moved one week to November 8, 1977, for Jamaica it moved from January 8, 1980 to February 1, 1980 and for the Philippines from April 22, 1970 to May 1, 1970.

The sixth preference category moved three weeks to May 2, 1980 for all foreign states, remained unavailable for India and Korea and moved three months and two weeks to April 15, 1980 for China, three weeks to May 22, 1980 for Mexico, three weeks to June 22, 1978 for the Philippines and two months from December 1, 1979 to February 1, 1980 for Jamaica.

Predictions on Availability of Visa Numbers

The Visa Office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has released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predictions on the availability of visa numbers:

1. Mexico - the current projection for Mexico allocations during FY 1982 is as follows:

Second preference: An advance of up to three months is expected with allocations for February and subsequently, with a cut-off date in 1974 by summer.

Third preference: Will remain current.

Fourth preference: An advance of one to two weeks can be expected most months.

Fifth preference: Movement of no more than a week at a time is likely in view of the heavy registered qualified demand. The cut-off may not be able to move ahead every month.

Sixth preference: Will remain at the worldwide cut-off during this fiscal year. For the first four months of this FY the qualified demand in this preference has been sufficient to make use of ten percent of Mexico allocations. It remains to be seen if demand will continue sufficient between now and September to permit all of the 2000 numbers set aside by section 20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this preference.

2. China:

Second: Expected to become "current" within a couple of months.

Third: Likely to advance 3-4 weeks in February with faster movement thereafter. Could become "current" during 1982.

Fourth: Movement of 1-2 weeks each month is anticipated.

Fifth: Should advance about 3-4 weeks per month.

Sixth: Expected to meet the worldwide preference cut-off date soon, perhaps in February.

3. India:

First four preferences will remain "current".

Fifth: Likely to advance about three weeks with each allocation. Whether India fifth will meet the worldwide cut-off depends on how quickly "All Foreign States" moves ahead. This is not likely to occur before the summer, if then.

Sixth: No significant allocations are expected for India sixth preference this fiscal year.

4. Jamaica:

Second: Very slow movement forward is anticipated in February and later months.

Third and Fourth: Will remain "current".

Fifth: Likely to meet the worldwide preference cut-off during 1982.

Sixth: Movement of one month to six weeks at a time is expected. Likely to reach the worldwide cut-off in the spring of 1982.

5. Korea:
 - First through Fourth will remain "current".
 - Fifth: Advance expected to average two weeks each month.
 - Sixth: Will remain "unavailable" this fiscal year.
6. Philippines:
 - Second: Advance of about one week each month is expected.
 - Third: Movement of between two and three weeks is likely each month until the late spring when we expect to reach particularly heavy concentrated demand which will slow progress for a few months.
 - Fourth: Advance of about a couple of months with each allocation is likely.
 - Fifth: Movement of 1-2 weeks per month.
 - Sixth: Advance of 3-4 weeks a month is likely during coming months.
7. Oversubscribed Dependencies:
 - No dramatic changes are expected in Hong Kong and St. Christopher-Nevis movements, except for St. Christopher fifth where heavy demand from INS is preventing advance of the date.
8. The first four preferences for "All Foreign States" are expected to remain "current" through fiscal 1982.
 - Fifth preference: The Visa Office looks forward to regular monthly advances of about two weeks until the last quarter of the FY. Movement of the date toward the end of the year may be slowed or halted as numbers available for allocation become fewer.
 - Sixth preference: Advances of 2-3 weeks each month are anticipated until we approach the end of the FY.

•New Bill May Slow Fifth Preference Visa Availabilit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passed a rider to Foreign Aid Bill which would create a new 20,000 visa number allocation for Taiwan. The Bill was opposed by the Administration but passed the House overwhelmingly and will probably be passed by the Senate in its rush to adjourn. The question is what will this Bill, if Passed, do to Taiwan, China and worldwide visa availability? Second and third preferences are expected to become current immediately for Taiwan and fourth preference would become current. Fifth preference would move forward from January 22, 1977 for China. Taiwan has most of its fifth preference applicants with priority dates of 1977-1978 so that there it should have no forward movement. Mainland China has most of its fifth preference applicants in 1978-1979.

The big problem is that with the additional demand of old Chinese numbers now the general surge of fifth preference numbers would move back and would, therefore, move forward about one week at a time instead of the present two as it has recently. The sixth preference for Taiwan is expected to stay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the Mainland has practically no sixth preference visa applicants.

The big question is what the President will do if the Bill does indeed pass both Houses? On the other hand he needs the Foreign Aid Bill but if he signs it he risks alienating relations with Communist China.

©1981 Copyright by Dan P. Danilov and Allen E. Kaye. As a public service, the authors provide authorization for the use or reproduction of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Proper acknowledgment of the source and identification of the authors should be indicated.



DAN P. DANILOV is a practicing attorney with Law Offices at 3108 Rainier Bank Tower in Seattle, WA 98101 (Tel. (206) 624-1580). He is a member of the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ALLEN E. KAYE is a practicing attorney with Law Offices at 233 Broadway, New York, N.Y. 10007 (Tel. (212) 964-5858). He is a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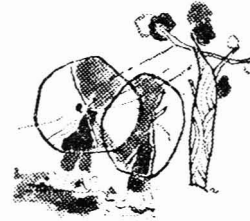


이민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인 소식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소식을 성의껏 고민 여러분 들께 알력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민에 관한 외문사항들은 저희 한인회로 문의 하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한 인 회 논 단 •



••• It 와 That 의 인간



• It 와 That 의 인간

김 동 진 목 사 (학코마 한인 루터교회)

간단한 영어 문장 가운데 수학적 방정식 모양 강조문이라고 하여 하나의 공식을 갖춘 문장이 있다. 이것이 바로 It is---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가령 예를 들어 It is the very man that I was looking for him이란 간단한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때 The man을 강조하기 위해 It 과 That 사이에 있는 명사를 "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분이다 " 라고 해석 해야 옳은 해석이 된다. 이때 Man 은 Is 라고 하는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가 되며 주어인 It 은 그저 주어라 될 뿐 아무 전 뜻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코저 하는 것은 It 라고 하는 대명사가 어떻게 문장 첫 머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진짜주어가 못되고 가짜 주어 노릇밖에 못하느냐 하는 데 있다. 이 문장의 경우뿐 아니라 It 은 대개의 경우 가주어로 쓰일 때가 많다. 입기나, 시간, 기후 등 날짜를 나타내는 It 은 다만 가주어에 그치다보니 해석할 때는 거의 해석치 않게 된다.

그저 습관이나 관습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지 의미상의 주어 구실은 항상 That 이하의 문구가 진짜주어가 되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려고 보니 It은 문장 앞에 우뚝서 있기는 하나 제대로 우두머리 구실을 못하고 허수자비 꼭꼭과시에 이르고만 있으니, It 가 입이 있어 불평을 말한다면 " 얌히어 놓을 때는 언제이고 이럴수가 있는가고 " 고 태고 태소 티 게나 지르 게끔 되어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That 의 인간보다 It 의 인간이 피고져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해볼 문제다. 그것은 무부대고 앞자리만 차지하려 드려 높아만지면 제일이고, 이름만 남리면 안하 무인격으로 흐르는 것이 더 정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소위 " 장 " 자리는 혼자 많아 누릴려고 하는가 하면 쥐꼬리 만한 감부라도 얻어 걸리면 명함찍어 돌리기에 바쁘고 장짜리 행세에 굴뚝 하다보니 진짜

번: 이번호에 미국 이민소식을 게재 하기 위하여 American Immigration News 를 입수 하였으나 편집 마감 후 이므로 시간 관계상 한글이 아닌 원문으로 편집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민여러분 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변하는 미국의

"주어" 되는 자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가짜 "주어" 되는 감투만이 나 돌아 이 행패의 피해는 막심하다 하겠다. 이민 나오기 전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아마 이런 꼬락선이 보기 싫어 조국을 등진 분들이 상당한 수가 될것으로 안다. 논자가 처음으로 여권수속을 한해가 일본 (오사카) 에서 Expo 70 의 세계 박람회 열리고 있었고 때를 같이 하여 루베크 아워 세계 방송인 대회가 동경에서 열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일에서 비롯되었거니와 여권 입기가 힘든 것인지는 그때 처음으로 알고 놀랐었다. 지금은 완전히 이런 패턴이 말끔이 시정되어 사라졌다니 우리나라에 대해 공지를 지니게 되어 흐뭇한 생각이 든다.

It 의 인간이 되어 세도만하고 안 아있으니 보다 차라리 That 의 인간이 되어 숨어서 봉사하고, 모르게 수곡수곡 자기일에만 몰두해서 이바지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야말로 기독교의 발자취를 걸어 가는 참된 생활인이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복음서에 왼손이 하는 일을 바른손이, 바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했지, 알게 하라고 하지는 아니했다.

It 보다 That 의 인간을 더 높이 평가한 말씀이라 하겠다.

That 의 인간이 되는 길은 앞에만 서려는 사람이기 보다는 뒤서면서 앞서려는 사람

이요, 득 보다는 손 (損) 을 감수할 과오가 되 있는 사람이요, 본전도 관계치 않는 사람임에는 불림었다.

그러나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어떻게 썩는가 생각해 보자. 남모르게 썩고, 남이 알세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서 살고, 살면서도 또 죽기위해 사는 것이 밀알이 아닌가 얼마전 두동강이 나서 꼴이 많이 아니었던 연합이니 협의이니 하는 수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앞서자거나 뒤서지 않겠다느니 하는 우선 순위에만 눈독이 들어 있다면 불경보다는 재물에 더 쓸려있는 눈길은 막을길 없거니와 설사 예수와 그리스도 외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편에 박수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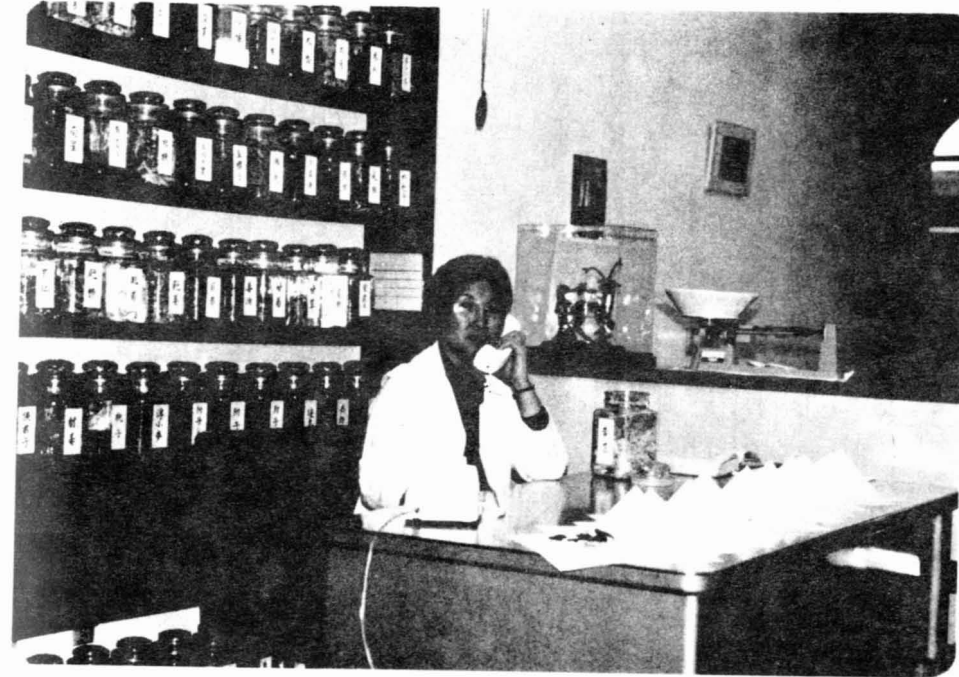
울리는 귀과리는 소리만은 더 요란스럽지만 무겁기는 오히려 무쇠가 더 무겁다.

It 과 That 의 쌍방의길, 항상, 우리는 양자 택일의 갈림길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

끝



제 일 한 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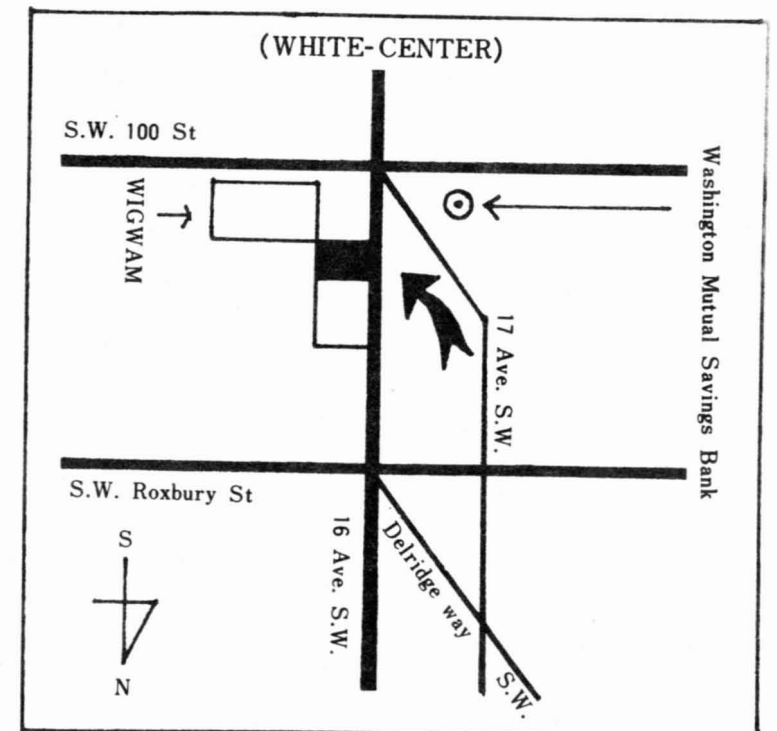
대표 이명심

- ※ 심한 권태와 피로가 오십니까?
- ※ 정신적으로 초조하고 불안 하십니까?
- ※ 식욕이 없고 항상몸이 나른 하십니까?
- ※ 몸이 쭈시고 저리고 아프십니까?
- ※ 살이 썩어서 고민이 되십니까?

★ 500여종의 가장 질이 좋은 한방 재료를 구비해 놓고,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정성을 기울여 당신의 건강을 돕고져 합니다.

- 고국에서 20년간 한방원 경영
- 1975년 한미침구사회 창립자겸 부회장
- 가주 연합침구사회 이사
- 가주 침구사 면허 67번 소지
- L.A. 동양 종합 의료원 침구과 담당
- L.A. 제일 침술원 원장
- 현재 제일 한방원 2년간 개업중

영업시간 : 평일 7시~6시
토요일 1시~5시
전화 : Bus. 762-9695
Res. 483-8136
주소 : 9832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HABA HABA

하 바 하 바
사 진 관
PHOTO STUDIO



INSTANT
5 MINUTE
COLOR
PASSPORTS

- ◆ 출장사진
- ◆ 여권사진
- ◆ 영주권, 시민권
- ◆ 가족사진, 단체사진
- ◆ 결혼, 돌, 화갑
- ◆ 비데오 촬영

SENIORS
SCHOOLS
WEDDINGS
COPIES
GROUPS
ANNIVERSARIES
SPECIAL EVENTS
FAMILY PORTRAITS

Quality Processing By
Eastman Kodak

☎ 475-6226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 알 림 *** 하 바 하 바
금년 1월 4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여권 갱신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시작
서류 일절 구비
무료 배부!



고운 피부는 모든 여성의 소망입니다.
* 거친 피부 * 잔주름 * 여드름 등으로
고민 하십니까?
불란서, 일본, 뉴욕, 등지에서 다년간
피부 미용학을 전공한 제가 자신을
갖고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드리고
살입니다.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찾아주세요.
무도 상담도 환영합니다.

La vogue Skin Care
라 보그 피부 미용 연구소

특별 봉사 요금

\$1200

30311 19th Pl. S.W. Federal Way 화요일 ~ 토요일 9 AM ~ 7 PM ☎ 838-2527 952-4675

본점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그랜드 식품점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나 날이 발전하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 속에, 저의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욱의 맛을 성실히 전해 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하옵니다.
결비와 불고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인삼코너



박약방

527-3010

약사 박정일
(미국에서 약대 전과정 수료)

- 임가의 처방조제
- 정확한 처방조제
- 건강상담 환영
- 완벽한 영양제, 비타민 완비
- 화장품
- 가정상비약 완비
- 각종 피임용구
- 인삼, 녹용, 응담, 우황청심환, 해구신 사향, 기용환 등 한국, 일본, 중국약 구비



주소: 8512 20th N.E.
SEATTLE, WA 98115
(그랜드 식품내)

최영세 생명보험



- 전미국 3대 보험회사
- 최우수 배당금 실적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 주택보험,
- 상업보험

1. 장기적금과 생명보험과 퇴직금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2. 값도 싸고 혜택과 서비스가 좋은 자동차보험
○ 사고, 티켓, 초보운전자, 보험료에 불만있는 분.
○ 40세 이상 운전기록 좋은 분 discount.

집 365-0085 사무실 624-8380



이퀴러블 생명보험 상호 회사
THE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세계에서 제일크고 믿을수 있는 푸루덴셜

이형석 종합보험

미국명: Max Lee

왜? 돈과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보험은 드시기전에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최고 60%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 특히 자동차 보험은 10여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거래선을 갖고 있기에 저렴한 보험료와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고 불러만 주십시오. 자신과 사망감으로 모시겠습니다.

1 생 명: 적은보험료, 많은이익 배당금, 각종혜택

1 건 강: 무한대의 혜택

1 자 동 차: 초보자, 연소자, 사고, 티켓, 면허정지, 취중운전등 각종 조건을 가장 적합한 회사에 연결

1 주 택, 교육, 장례, 사업보험 일체

1 기 타 보험문의 대한영 243-4315(집)

사무실: 447-2900, 447-2908(직통)

201 Broad St. Seattle, WA 98121 (무료주차장 완비)

이영주 치과 Young J. Lee D.D.S.

타코마 지역

시애틀 지역

화, 목, 로 (아침 9시 - 저녁 6시)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월, 금 (아침 9시 - 저녁 5시) 수 (12 - 9)
STEVENS DENTAL CENTER
20728 -76th Ave. W.
Edmond, WA 98020

☎ 581-1412

☎ 775-3456



The Instant Printing Professionals™
your
FULL SERVICE PRINTERS

423 Stewart,
Seattle, WA 90101
(206)621-9355

OVER 350 LOCATIONS NATIONWIDE
© Copyright 1981 SIR SPEEDY, INC.

謹賀新年

편집후기:

●..... 어렵게 시작된일이 보람이 있
시 무엇인가 새로움것을 창작해 낸다는
일에 신념이 있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
해 내는 기본으로 시작해서 허둥지둥
종의 점을 찍고보니 생각했던것보다는
미숙하고 졸렬 하하는 점에서 스스로
반성 해봅니다.

●..... 다음 호 부록은 월간으로 고민
어려분들께 배부될 예정입니다. 보다
청신하고 앞찬우리의 회보지의 질을 높
이는데는 고민어려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 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부고
하십 내용이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보고싶은 고견 계시면 본 한인회 편
집부로 연락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사회의 숨은 이야기 (불우 이웃돕기)

- 공지 사항 (알리고 싶은 이야기 등)
- 건의 사항
- 생활 정보 및 고양이 관한 글
- 논문 시 수필 소설 희곡 시나리오 기행문 등 창작품

이상과 같은 독자위 난이 마련되어 있으니
고민어려분 들의 많은 부고를 바랍니다.

한인회보
1982년 2월호 통권 제 권
비매품

발행인 : 엄 명 보
편집 : 박 용 목
씨애틀 와싱톤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682 - 4252



개원인사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 동서한의원 (종로구 신문로) 에서 24년간 진료
하다가 뜻한바 있어 미국땅에 왔습니다.
그간 뒤편 토대로 여러분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래 장소에 개원함에 우선 지상으로나마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소 교통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애용려
주시고 언제나 전화 상담과 건강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서 한의원

한의학 박사 윤 성 희 드림

대표전화 (206) 581-3393

경 력

경북 중고등학교 졸업
경희 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Bernadian University 보건 대학원수로 ph.D
동서의원 : 개설(서울종로구 신문로 1가72)
West Coast Medical Group침 자문의사(L.A.)
Nevada 주 한의사 면허(미국에서 처음 한의사시험)취득
Nevada 주 한의사회 부회장
International Acupuncture Center 개설 (Las Vegas, Nevada)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전문 병원 개설)
색맹치료에 침의학적 통계발표(제4차 전국 한의학회 대회)
자유중국 한의사회 학술고문
미국 중의학회 이사
국제 침의학회 이사
제4차 세계 침술학회대회 추진위원(Las Vegas)
대한 한의사협회 연구개발상 수상
대한 한의사협회 공로상 수상
색맹 치료의 침의학적 통계발표(제5차 전국 한의학회 대회)
(2차 발표 1,500명 통계)
수, 도, 침 치료법(저서)
Guam 침의사 면허
Northwest institut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Seattle, WA)교수

EAST - WEST ORIENTER HEALTH CENTER
(TACOMA)
TEL : (206) 581-3393
ADD : 4102-110th st S.W. TACOMA WA 98499
(귀빈원 건너편)
진료시간 : 아침 9시 - 오후 6시 (일·공휴일 휴진)
(Federal Way)
ADD : 40680 323rd st #L-6
Federal Way WA 98003
진료시간 : 아침 7시 - 오후 10시

강성목보험



생명보험 . 의료보험 . 그룹보험 .
(연락처)

전화 : 588-3112 (부코마)
24시간
624-8380 (씨애틀)
월. 목

교포 여러분!
교육보험은 저에게 상당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에퀴터블 보험

동서한의원

미국 3대 보험회사

계리사
이주영

전화
623-4181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AN SOP HAHN

12904 S.E. 45th LN.

BELLEVUE, WA. 98006